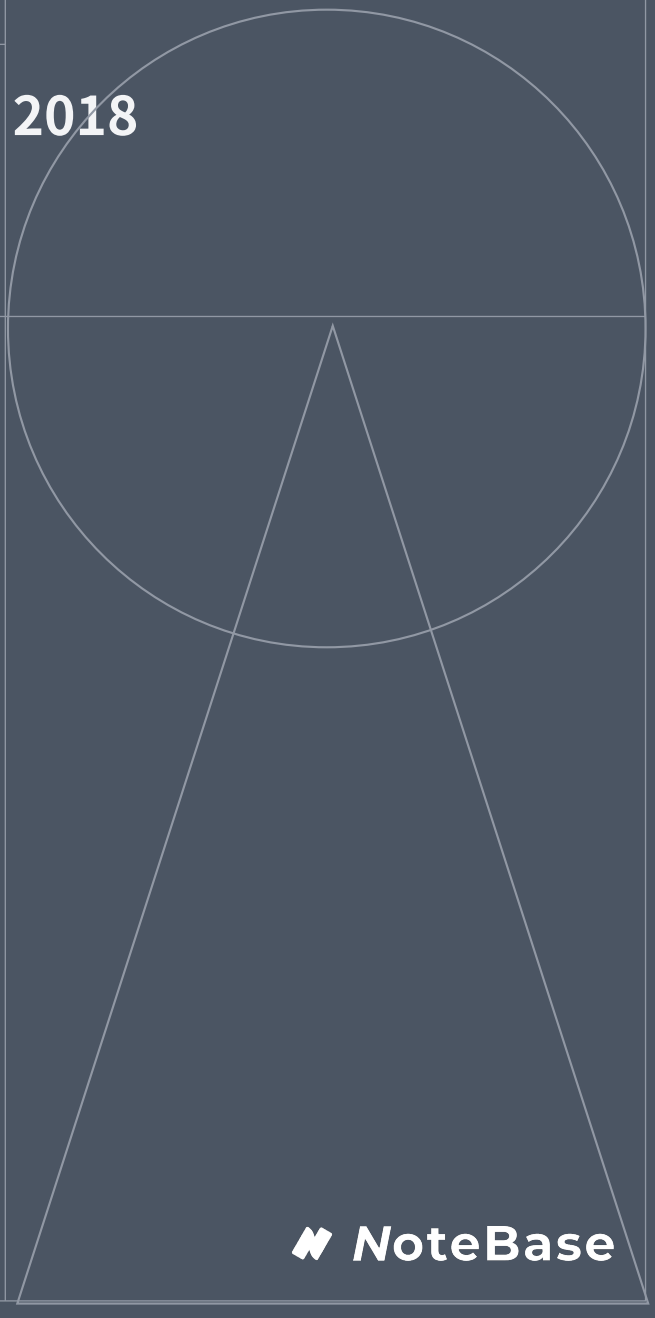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18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18

문 1.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부모와 자식간에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

② 김 양의 할머니는 안동 권씨라고 합니다.

③ 내일이 이 충무공 탄신 500돌이라고 합니다.

④ 이번 여름에는 카리브 해로 휴가를 가기로 했어.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존 명사·접미사와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는 앞말에 기대어 쓰이는 말이므로 띄어 쓴다. 관계를 뜻하는 '간'과 아랫사람을 조금 높여 부르는 '양'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성씨 자체나 그 가문을 뜻하는 '-씨'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사전에 하나의 명사로 등재된 '이충무공'과 외래어 지명에 붙는 '해'도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간'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틀린 표현은 '자식간'이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로 고친다.

② O. 아랫사람을 조금 높여 부르는 '양'은 의존 명사이므로 '김 양'으로 띄어 쓴다. '권씨'의 '-씨'는 성씨나 그 가문을 뜻하는 접미사이므로 '안동 권씨'처럼 붙여 쓴다.

③ X. '이충무공'은 이순신의 성과 시호를 함께 이르는 사전 등재 명사이므로 붙여 쓴다. 틀린 표현은 '이 충무공'이며, '내일이 이충무공 탄신 500돌이라고 합니다.'로 고친다.

④ X. 외래어 지명 뒤에 붙는 '해'는 앞말에 붙여 쓴다. 틀린 표현은 '카리브 해'이며, '이번 여름에는 카리브해로 휴가를 가기로 했어.'로 고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간'과 ②의 '-씨'는 모두 앞말 뒤에 오지만 품사가 다르다. '간'은 의존 명사라 띄어 쓰고, '-씨'는 접미사라 붙여 쓴다. ③은 일반적인 호칭어처럼 보이는 '이 충무공'을 사전 등재 명사 '이충무공'과 혼동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앞말 뒤의 요소가 홀로 쓰이기 어려운 의존 명사이면 띄어쓰고, 앞말에 새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면 붙여 쓴다. 고유 명사는 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관계의 '간'과 호칭 '양'은 띄고, 성씨의 '-씨'와 사전 등재 고유 명사는 붙인다.

NoteBase

문 2.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밥이 차져서 내 입맛에 맞았다.

② 아기가 이쁘디이쁜 미소를 짓고 있다.

③ 그녀가 내 소맷깃을 슬며시 잡아당겼다.

④ 동생은 안경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경 도수를 더 돋구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준어의 올바른 활용과 어휘의 정확한 쓰임을 묻는 문제이다. 특히 소매 끝부분을 가리키는 말이 '소맷귀'임을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차지다'는 밥·떡·반죽 따위에 끈기가 많다는 뜻이며, 활용형은 '차져서'이다.
'-디-'는 '곱디곱다'처럼 앞말의 뜻을 강조하는 연결 요소이므로 '이쁘디이쁜'으로 쓴다.
'소맷귀'는 소맷부리의 구석 부분이고, '깃'은 옷의 목둘레에 덧댄 부분이므로 소매 끝을 '소맷깃'이라고 하지 않는다.
'돋우다'는 안경의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차지다'는 밥에 끈기가 많다는 뜻이다. '차지다'가 활용되어 '차져서'가 되므로 바른 표현이다.
② O — '이쁘다'에 강조의 뜻을 더하는 '-디-'가 결합한 '이쁘디이쁜'은 바른 표현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소맷깃'이다. '깃'은 옷의 목둘레 부분이므로 소매에 붙여 쓰지 않는다. 소맷부리의 구석 부분은 '소맷귀'이므로 '그녀가 내 소맷귀를 슬며시 잡아당겼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돋우다'는 안경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안경 도수를 더 돋우었다'는 바른 표현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소맷깃'은 '소매+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사이시옷 표기도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깃'은 목둘레의 부분이므로 소매 끝부분의 명칭이 될 수 없다는 뜻을 함께 따져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합성어의 표기만 보지 않고, 그 말이 실제 대상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 확인한다. 소매 끝의 구석을 뜻하면 '소맷귀', 목둘레에 덧댄 부분을 뜻하면 '옷깃'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소매 끝의 구석은 소맷귀, 목둘레의 부분은 옷깃이다.

NoteBase

문 3. 다음은 사이시옷 규정의 일부이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① 냇가
② 윗옷
③ 훗날
④ 예삿일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이시옷을 적는 합성어의 조건과 실제 발음이 그 조건에 맞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이시옷은 순우리말끼리 또는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거나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적는다.
이 문항의 판단축은 뒷말의 첫소리와 실제 발음이다. 된소리이면 [1], ㄴ·ㅁ이면 ㄴ 첨가 [2], 모음이면 ㄴㄴ 첨가 [3]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냇가'는 '내+가'의 순우리말 합성어이다. 뒷말 '가'가 된소리 [까]로 발음되어 [내까]가 되므로 [1]에 해당한다.

② X: '윗옷'은 [위돋]으로 발음되어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필요한 ㄴㄴ 소리가 덧나지 않는다. 틀린 판단은 '윗옷'이 [3]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올바르게는 '윗옷'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예이다.

③ O: '훗날'은 '후+날'의 순우리말 합성어이다. 뒷말 '날'의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 [훈날]로 발음되므로 [2]에 해당한다.

④ O: '예삿일'은 한자어 '예사'와 순우리말 '일'이 결합한 말이다.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고 ㄴㄴ 소리가 덧나 [예산닐]로 발음되므로 [3]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표기에 사이시옷 'ㅅ'이 있어도 실제 발음이 [윈놑]처럼 ㄴㄴ 첨가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윗옷'의 실제 발음은 [위돋]이므로 제시된 조건의 예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지 확인한 뒤, 뒷말 첫소리를 본다.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이면 된소리 발음, ㄴ·ㅁ이면 ㄴ 첨가, 모음이면 ㄴㄴ 첨가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사이시옷 판단은 '표기'보다 '뒷말 첫소리와 실제 발음'이 기준이다: 된소리·ㄴ/ㅁ+ㄴ·모음+ㄴㄴ.

NoteBase

문 4. 다음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사드라마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혹은 역사적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작가의 단일한 재해석 또는 상상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에 의해 능동적으로 해석되고 상상됨으로써 다중적으로 수용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역사의 속성을 견지한다. 이는 곧 과거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텔레비전 역사드라마가 현재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역사적 시간과 공간적 배경 속에 놓여 있는 등장인물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시청자들이 역사드라마를 주제로 삼아 사회적 담론의 장을 열기도 한다.

① 현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소재로만 역사드라마를 만들어야겠군.

② 역사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이 사회적 화젯거리를 만들 수 있겠군.

③ 작가가 강조하는 역사적 교훈을 배우기 위해 역사드라마를 시청해야겠군.

④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은 역사드라마에서 항상 악인으로만 그려지겠군.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역사드라마가 과거를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시청자에게 다중적으로 해석되어 사회적 담론을 만들 수 있다는 성격을 묻는다.

핵심 개념

역사드라마의 다중적 수용이란 작가의 단일한 해석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상상하여 여러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문은 이러한 수용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고, 역사드라마가 사회적 담론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문은 역사드라마가 현재를 지향한다고 했을 뿐, 현재와 밀접한 소재로만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틀린 표현은 '현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소재로만'이며, 올바르게는 과거의 역사적 시간·공간을 배경으로 한 작품도 현재의 시청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② O: 지문은 시청자들이 역사드라마를 주제로 사회적 담론의 장을 열기도 한다고 했으므로, 사회적 화젯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X: 지문은 작가가 강조한 역사적 교훈을 배우는 수동적 시청이 아니라 시청자의 능동적 해석과 상상을 강조한다. 틀린 표현은 '작가가 강조하는 역사적 교훈을 배우기 위해'이며, 올바르게는 시청자는 역사드라마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현재의 관점에서 의미를 만들어 낸다.
④ X: 지문은 역사드라마가 단일한 재해석이 아니라 다중적으로 수용된다고 보므로, 인물이 항상 한 가지 모습으로만 그려진다고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항상 악인으로만'이며, 올바르게는 부정적 평가를 받은 인물도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의 '~로만', ④의 '항상 ~만'처럼 지문에 없는 배타적·절대적 조건을 덧붙인 표현이 함정이다. ③은 '작가의 교훈'과 '시청자의 능동적 해석'을 바꾸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반응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지문의 결론을 확인한다. 이 지문처럼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해석한다', '사회적 담론의 장을 연다'는 내용이 있으면 수용자 중심의 반응을 고르고, '오직', '항상', '~만'처럼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선택지는 지문 근거가 있는지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역사드라마는 과거의 재현만이 아니라 현재 시청자의 능동적 해석과 사회적 담론으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5.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값진[갑찐]: 탈락, 첨가 현상이 있다.

② 밖과[박꽈]: 대치, 축약 현상이 있다.

③ 끓는[끌른]: 탈락, 대치 현상이 있다.

④ 밭도[받또]: 대치, 첨가 현상이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음이 바뀌는 과정에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대치, 새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탈락은 음운 하나가 사라지는 현상이며, 자음군 단순화와 ㅎ 탈락이 이에 해당한다. 대치는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며, 된소리되기·유음화·음절 끝소리 규칙이 이에 해당한다.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현상이고, 축약은 둘 이상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값진[갑찐]'에서는 겹받침 ㅄ 가운데 ㅅ이 발음되지 않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탈락이 있다. 이어서 ㅈ이 ㅉ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대치도 있다. 틀린 표현은 '첨가'이며, 올바르게는 '탈락, 대치 현상이 있다.'이다.

② X. '밖과[박꽈]'에서는 받침 ㄲ이 [ㄱ]으로 실현되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뒤의 ㄱ이 ㄲ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둘 다 대치 현상이다. 틀린 표현은 '축약'이며, 올바르게는 '대치 현상이 있다.'이다.

③ O. '끓는[끌른]'에서는 ㅎ이 탈락하고, 이어서 ㄴ이 앞의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탈락과 대치 현상이 모두 있다.

④ X. '발돋[발똑]'에서는 ㄷ이 ㄸ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이는 대치 현상일 뿐 새 음운이 더해지는 첨가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첨가'이며, 올바르게는 '대치 현상이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된소리되기로 자음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자음이 경음으로 바뀐 것이므로 첨가가 아니라 대치이다. ①의 [찐], ②의 [꽈], ④의 [똑]을 첨가로 판단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음 전후를 음운 하나씩 대응해 본다. 음운이 사라지면 탈락, 다른 음운으로 바뀌면 대치, 없던 음운이 늘면 첨가, 둘이 하나의 새 음운으로 합쳐지면 축약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ㅎ이 없어지면 탈락, ㄴ이 ㄹ로 바뀌면 유음화라는 대치이다. 된소리되기도 대치이다.

NoteBase

문 6.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은 그 성격에 따라 나누어 보면 종교적·주술적인 동물, 신을 위한 동물, 인간을 위한 동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 구분은 엄격한 것이 아니므로 서로의 개념을 넘나들기도 하며, 여러 뜻을 동시에 갖기도 한다.

(나) 인류가 남긴 수많은 미술 작품을 살펴보다 보면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술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동물에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개나 고양이, 꾀꼬리 등도 있지만 해태나 봉황 등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동물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종교적·주술적인 성격의 동물은 가장 오랜 연원을 가진 것으로, 사냥 미술가들의 미술에 등장하거나 신앙을 목적으로 형성된 토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대개 초자연적인 강대한 힘을 가지고 인간 세계를 지배하거나 수호하는 신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이지가 발달함에 따라 이들의 신적인 기능은 점차 감소되어, 결국 이들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라) 동물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의 위엄을 뒷받침하고 신을 도와 치세(治世)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이 동물들 역시 현실 이상의 힘을 가지며 신성시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신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많은 동물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것들이다. 그리하여 그 신분에 알맞은 모습으로 조형화되었다.

① (가) - (나) - (라) - (다)
② (가) - (다) - (나) - (라)
③ (나) - (가) - (다) - (라)
④ (나) - (다) - (라) - (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각 문단의 화제와 지시 표현을 연결하여 글의 전개 순서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1. (나) — 미술 작품에 다양한 동물이 등장한다는 전체 화제를 제시한다.
2. (가) — 그 동물을 성격에 따라 종교적·주술적 동물, 신을 위한 동물, 인간을 위한 동물로 분류한다.
3. (다) — (가)에서 제시한 첫 범주인 종교적·주술적 동물의 성격과 변화를 설명한다.
4. (라) — 신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동물, 즉 신을 위한 동물의 성격을 설명한다.

왜 이 순서: (나)의 '다양한 동물들'을 (가)가 분류하고, (다)와 (라)는 그 분류 항목을 차례로 구체화한다. 특히 (라)의 '이 동물들 역시'는 앞의 분류를 전제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가 먼저 오면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이라는 대상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 틀린 순서: (가)→(나)→(라)→(다) → 올바르게는 (나)→(가)→(다)→(라)이다.
② X — (다)는 '종교적·주술적인 성격의 동물'을 설명하므로, 이를 분류하여 제시한 (가) 뒤에 와야 한다. 틀린 순서: (가)→(다)→(나)→(라) → 올바르게는 (나)→(가)→(다)→(라)이다.
③ O — (나)에서 화제를 열고, (가)에서 분류 기준을 제시한 뒤, (다)와 (라)에서 각각 종교적·주술적 동물과 신을 위한 동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므로 자연스럽다.
④ X — (다)와 (라)는 모두 (가)의 분류를 이어받는 문단이므로, 분류 문단인 (가)를 뒤에 둘 수 없다. 틀린 순서: (나)→(다)→(라)→(가) → 올바르게는 (나)→(가)→(다)→(라)이다.

오답 포인트

(다)와 (라)는 모두 동물의 성격을 설명하므로 비슷해 보이지만, 둘 다 (가)의 분류를 전제로 한다. 특히 (다)의 '종교적·주술적인 성격'은 (가)의 첫 항목을 그대로 받고, (라)의 '이 동물들 역시'도 앞선 분류 체계 안에서 이해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단 순서 문제는 전체 화제 제시 → 분류 기준 제시 → 각 분류 항목의 구체적 설명 순서로 판단한다. '이', '역시', 반복된 핵심어처럼 앞 문단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의 선행 내용을 먼저 찾는다.

암기 포인트

화제 제시 → 분류 → 첫 항목 설명 → 다음 항목 설명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7. ㉠~㉤ 중 다음 시의 주제와 관련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은?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벼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농무』 —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화자가 처한 피폐한 농촌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원통함, 즉 울분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을 찾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이 시의 '우리'는 고달픈 농촌 생활에 억눌린 농민들이다. 농무의 신명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답답하고 원통한 현실에서 나온 울분과 몸부림을 드러낸다.
울부짖음은 억눌린 감정의 분출을, '해해댐'은 현실을 잊으려는 일시적 흥겨움이나 해학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쪼무래기들'은 장거리를 따라붙어 악을 쓰는 아이들일 뿐, 화자의 고달픈 농촌 현실에 대한 울분을 대변하지 않는다. 틀린 대상은 '쪼무래기들'이며, 화자의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은 '꺽정이처럼 울부짖는' 인물이다.
② X. '처녀애들'은 담벼락에 붙어 철없이 킬킬대는 인물로 제시된다. 이들의 가벼운 웃음은 화자의 원통한 정서와 거리가 있다. 틀린 대상은 '처녀애들'이며, 올바르게는 현실의 울분을 분출하는 '꺽정이처럼 울부짖는' 인물이다.
③ O. '꺽정이처럼 울부짖고'는 억눌린 농민의 분노와 원통함을 격렬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한다.
④ X.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은 고된 현실 속에서 잠시 흥을 내거나 해학적으로 웃는 모습이다. 화자의 핵심 정서인 원통함과 울분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서림이처럼 해해대는 인물'이며, 올바르게는 '꺽정이처럼 울부짖는 인물'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해해대지만'과 작품 끝의 '신명'만 보고 농무를 단순한 흥겨움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에서 드러나듯, 이 작품의 신명에는 피폐한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울분이 깔려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적 화자의 정서를 묻는 문제에서는 화자가 직접 밝힌 감정어와 가장 가까운 행동·말을 찾는다. 이 시에서는 '원통하다'와 연결되는 격렬한 감정 분출인 '울부짖고'가 핵심 단서이다.

암기 포인트

'농무'의 신명은 즐거움만이 아니라 고달픈 농민의 울분이 터져 나온 몸부림이다.

NoteBase

문 8. 다음 글의 중심 생각을 표현한 성어는?

내 집이 산속에 있는데 문 앞에 큰 개울이 있다. 해마다 여름철에 소낙비가 한 차례 지나가면, 개울물이 갑자기 불어 언제나 수레 소리, 말 달리는 소리, 대포 소리, 북소리를 듣게 되어 마침내 귀에 못이 박혔다. 내가 일찍이 문을 닫고 누워서 소리의 종류를 비교해 들어 보았다. 깊은 솔숲에서 솔바람 소리 이는 듯하니 이 소리는 청아하게 들린다.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 이 소리는 격분한 듯 들린다. 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하니 이 소리는 교만하게 들린다. 많은 축(笛)이 차례로 연주되는 것 같으니 이 소리는 성난 듯이 들린다.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리는 것 같으니 이 소리는 놀란 듯 들린다. 약한 불 센 불에 찻물이 끓는 듯하니 이 소리는 아취 있게 들린다. 거문고가 궁조(宮調)와 우조(羽調)에 맞게 연주되는 것 같으니 이 소리는 슬프게 들린다. 종이 창문에 바람이 문풍지를 울게 하는 듯하니 이 소리는 의아하게 들린다.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

① 以心傳心
② 心機一轉
③ 人心不可測
④ 一切唯心造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부의 같은 소리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청아함·격분·교만함·성남·놀람·아쉬움·슬픔·의아함 등으로 다르게 느껴진다는 중심 생각을 성어로 표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모든 현상이 마음이 지어 내는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글쓴이는 여러 소리 자체의 객관적 성질보다,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느낌을 만들어 낸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심전심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을 전함, 심기일전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함, 인심불측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움이라는 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말이나 글 없이 마음으로 서로의 뜻을 전한다는 뜻이다. 글은 마음이 소리를 다르게 느끼게 함을 말하므로 맞지 않는다. 틀린 연결 →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성어는 일체유심조이다.
② X: 심기일전(心機一轉)은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새롭게 돌이킨다는 뜻이다. 글에는 결심을 새롭게 하거나 태도를 바꾸는 내용이 없다. 틀린 연결 → 마음이 인식과 느낌을 만든다는 일체유심조가 알맞다.
③ X: 인심불측(人心不測)은 사람의 마음속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글은 타인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소리를 자신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인다. 틀린 연결 → 글의 중심 생각은 일체유심조이다.
④ O: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모든 현상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글쓴이가 같은 개울물 소리를 여러 모습에 빗대어 서로 다른 정서로 듣는 것은 마음이 느낌을 빚어 낸다는 생각과 맞는다.

오답 포인트

①~③도 모두 '마음'과 관련된 성어이므로 글에 마음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고르면 안 된다. 특히 ③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움'과 글의 '소리를 들으며 느끼는 마음'은 대상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성어의 한자에 '심'이 들어가는지만 보지 않고, 글의 핵심 관계를 확인한다. 외부 대상이 마음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거나 느껴지면 '마음이 현상을 만든다'는 일체유심조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암기 포인트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 낸다.

NoteBase

문 9. 다음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S# 75. 북측 초소(밤)
성식: (우진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워커 끈을 풀어서 다시 매 주며) 얌마, 군인이 한 번 가르쳐 주면 제대로 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매 줄 순 (씁쓸해지며) 없잖아. (워커 끈을 매 주는 안타까운 표정. 일어서며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참! (봉투에 싼 물건을 꺼내 들고 한 손으로 우진의 어깨를 짚으며 짐짓 느끼한 톤으로) 생일 축하해. 진.
또 한번 우엑! 하는 수혁. 너무 그러지 말라는 듯 옆에서 툭 치는 경필. 포장을 끄른 우진. 일제 수채화 물감 한 통과 붓 몇 자루를 내려다본다.
… (중략) …
우진: (진정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나도, 형들 줄려구 준비한 게 있어요.
수혁: 뭔데?
말없이 성식이 앉았던 자리로 와 앉는 우진. 모두들 궁금해하며 주목한다. 잠시 침묵. 주머니를 뒤지며 시간을 끄는 우진. 찾는 물건이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한다.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더니, 큰 소리로 방귀를 뀌는 우진. 일동, 좌절하며 고개를 푹 숙인다. 낄낄대는 우진, 일어서서 테이블로 간다. 서랍을 열고 서류철을 꺼내 뭔가를 찾는 우진. 경필, 무표정한 얼굴에서 갑자기 오만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린다.
경필: (코를 막으며) 야아, 문 열어!
초소 문을 열러 가는 성식, 손을 내미는 순간 먼저 문이 열린다. 무심코 돌아본 경필, 굳어 버린다.
— 박찬욱 외, 「공동경비구역 JSA」 —

① 성식은 인간적이고 성품이 따뜻하다.
② 우진은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해학적인 상황을 만든다.
③ 수혁은 우진의 선물을 궁금해한다.
④ 경필은 참을성이 강하고 포용력이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사·행동·표정으로 드러난 인물의 성격과 태도를 제시문 안의 근거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희곡의 인물은 대사뿐 아니라 행동 지시와 표정·몸짓을 통해 성격이 드러난다. 인물의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한 행동을 막연한 성품으로 확대하지 않고, 그 행동이 나타내는 구체적 태도를 확인한다. 성식은 우진을 타이르면서도 생일을 축하하는 인물이고, 우진은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분위기를 흔들며, 경필은 불쾌감을 참지 못해 문을 열어 달라고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성식은 우진의 워커 끈을 매 주며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타이르지만, 이어 우진의 생일을 축하하고 선물도 건넨다. 우진을 걱정하고 챙기는 인간적·따뜻한 태도가 드러난다.

② O: 우진은 수혁에게 방귀를 뀌고, 선물을 찾는 과정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몸을 기울이는 등 장난스러운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이 긴장된 상황에 해학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③ O: 우진이 형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하자 수혁은 곧바로 "뭔데?"라고 묻는다. 이는 우진이 준비한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반응이다.

④ X: 경필은 수혁이 토하려 하자 말리는 듯 행동하지만, 우진이 선물을 찾는 동안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돌리며 결국 "아야, 문 열어!"라고 외친다. 틀린 표현은 "참을성이 강하고 포용력이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불쾌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경필이 수혁을 제지한 한 장면만 보고 배려심과 포용력으로 단정하게 하는 함정이다. 뒤이어 나타나는 찡그린 표정, 고개를 돌리는 행동, 문을 열어 달라는 외침까지 함께 보면 인내심이 강하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이해 문제에서는 대사, 행동 지시, 표정을 순서대로 확인하고, 한 장면의 인상보다 제시된 모든 반응이 같은 성격 판단을 뒷받침하는지 살핀다. 성격을 지나치게 긍정적이거나 일반적으로 단정한 선지는 후속 행동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희곡 인물 성격은 말·행동·표정을 묶어 판단한다. 한 장면의 배려가 곧 강한 인내심을 뜻하지는 않는다.

NoteBase

문 10. 다음 글에서 토의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 우리나라의 교통 체증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분야의 권위자를 모셨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국장: 교통 체증 문제는 승용차 10부제 실시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윤 사장: 그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아주 불만스러운 제도입니다. 재정이 좋은 사업자는 번호판이 다른 차를 하나 더 구입하면 되겠지만, 영세한 사업자들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박 위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어떨까요? 이 제도가 잘 활용되면 승용차 이용자도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것입니다.
김 국장: 승용차 10부제가 실시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윤 사장: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권의 침해가 과연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회자: 서로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승용차 10부제에서 상업용은 제외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윤 사장: 상업용 승용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하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어떤 의미에서 다 상업용이지요.
김 국장: 어려움을 같이 감수해야 합니다. 모두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떤 해결방안도 찾기 어렵습니다.
박 위원: 두 분 말씀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승용차 이용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굳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절 귀성길에 시행했던 고속버스 전용 차로제의 효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회자: 버스 전용 차로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군요. 이번 토의는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데 그 의의를 두었습니다. 승용차 10부제와 같이 미진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사회자: 참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제를 전환하고 있다.
② 김 국장: 상대방의 주장을 수긍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한다.
③ 윤 사장: 당면한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④ 박 위원: 참여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토의 참여자의 발언이 상대 의견의 수용·경청·타협·대안 제시 중 어느 말하기 방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NoteBase

핵심 개념

경청은 다른 참여자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수용은 상대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의 입장이나 논의 방향에 반영하는 것이고, 타협은 서로의 주장을 일부 양보하여 공통안을 찾는 것이다. 대안 제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사회자는 승용차 10부제에 관해 의견 차이가 계속되자 다음 토의로 미룬다. 이는 참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다른 주제로 전환한 것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참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제를 전환'이다. 올바르게는 '합의되지 않은 안건의 논의를 다음으로 미룬다'이다.
② X. 김 국장은 윤 사장의 재산권 침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를 수긍하지 않고, '어려움을 같이 감수해야 한다'며 승용차 이용 제한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한다. 틀린 표현은 '상대방의 주장을 수긍하면서도'이다. 올바르게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며'이다.
③ X. 윤 사장은 영세 사업자의 부담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상업용 승용차 제외안에도 '사업하는 사람이 타는 승용차는 다 상업용'이라고 반박한다. 타협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열어 둔 태도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이다. 올바르게는 '타협안의 적용 범위를 문제 삼으며 반대한다'이다.
④ O. 박 위원은 '두 분 말씀 모두 일리가 있다'고 하여 김 국장과 윤 사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버스 전용 차로제라는 구체적인 해결 대안을 제시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다음 번에 논의'는 주제 전환이 아니라 합의되지 않은 승용차 10부제 논의를 보류한 것이다. ③의 윤 사장은 문제점을 말하지만 사회자의 절충안까지 거부하므로 타협적 태도로 볼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언의 일부 표현만 보지 않고 앞뒤 발언에 대한 반응을 함께 확인한다. 상대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한 뒤 해결책을 제시하면 경청과 대안 제시이고, 절충안을 반박하면 타협의 태도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일리가 있다'는 경청, '버스 전용 차로제'는 구체적 대안 제시를 드러낸다.

NoteBase

문 11. 반의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식: 몰상식'에서는 부정(否定)의 접두사가 붙어 반의어가 만들어진다.

② '남자: 여자'는 '사람'이라는 공통 요소와 '성별'의 대조적 요소가 있어서 반의 관계를 이룬다.

③ '오다: 가다'는 '이동'이라는 공통 요소와 '방향'의 대조적 요소가 있어서 반의 관계를 이룬다.

④ '하늘: 땅'은 두 단어 사이에 의미의 중간 영역이 있어서 서로 반의 관계를 이룬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반의어가 공통 의미 요소를 바탕으로 대조적 의미 요소를 가지는지, 그리고 의미의 중간 영역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반의어는 공통된 의미 범주 안에서 서로 대립하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상식과 몰상식은 '상식'이라는 공통 의미를 바탕으로 긍정과 부정이 대립한다.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라는 공통 의미 안에서 성별이, 오다와 가다는 '이동'이라는 공통 의미 안에서 방향이 대립한다.
정도 반의어는 높다·낮다처럼 중간 정도를 상정할 수 있지만, 하늘과 땅은 그와 같은 의미의 중간 영역을 상정하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O. '상식: 몰상식'은 '몰-'이라는 부정 접두사가 붙어 상식의 뜻을 부정하므로 반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② O. '남자: 여자'는 '사람'이라는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며, 성별이라는 대조적 의미 요소로 대립한다.
③ O. '오다: 가다'는 '이동'이라는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며, 이동의 방향이 화자 쪽인지 화자에게서 멀어지는 쪽인지로 대립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의미의 중간 영역이 있어서'이다. '하늘: 땅'은 의미의 중간 영역을 상정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상하의 대립적 위치를 나타내는 말로 이해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중간 영역'이라는 말을 넣어 정도 반의어의 성질과 혼동하게 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 물리적 공간이 있다는 사실과 두 단어의 의미 사이에 중간 정도가 있다는 것은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두 단어에 공통 의미 요소가 있는지 확인한 뒤, 무엇이 대립하는지를 본다. 이어서 높다·낮다처럼 정도의 중간값을 말할 수 있는지 점검하면 '중간 영역' 설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반의어는 공통 범주 안의 대립이며, ‘중간 영역’은 정도를 나타내는 반의어의 특징이다.

NoteBase

문 12. 밑줄 친 부분의 고쳐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 일을 한 사람은 민국예요. → '민국이'와 '이에요'가 결합하였으므로, '민국예요'는 '민국이예요'로 바꾸어야 한다.

② 교실에서는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가 나와야 하므로, '주십시요'로 바꾸어야 한다.

③ 자신이 한 말은 반듯이 책임을 져야 한다. → '반듯이'는 '반듯하게'의 의미이므로 문맥에 맞게 '꼭'이라는 의미의 '반드시'로 고쳐야 한다.

④ 선수들의 잇딴 부상으로 전력에 문제가 생겼다. → 동사 '잇달-'과 어미 '-은'이 결합한 활용형은 '잇단'이므로, '잇딴'은 '잇단'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에요/예요', '-십시오', '반드시/반듯이', '잇단'의 올바른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에요/예요'는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없으면 '예요'를 쓴다.
'십시오'는 높임을 나타내는 명령·요청의 종결 표현이며, '십시요'는 표준 표기가 아니다.
'반드시'는 '꼭, 틀림없이'의 뜻이고, '반듯이'는 '반듯하게'의 뜻이다.
'잇단'은 '잇달다'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여 된 말이며, '잇딴'은 잘못된 표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민국'은 받침 'ㄱ'으로 끝나므로 '예요'가 아니라 '이에요'를 붙인다. 따라서 '민국예요'는 '민국이에요'로 고치는 것이 맞다.
② X. '주십시오'는 보조 용언 '주다'의 높임 표현에 종결 어미 '-십시오'가 붙은 올바른 표현이다. 틀린 표현은 '주십시오'를 '주십시요'로 바꾸어야 한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주십시오'를 그대로 쓴다.
③ O. 문맥은 책임을 꼭 져야 한다는 뜻이므로 '반듯이'가 아니라 '반드시'를 쓴다. '반듯이'는 '반듯하게'의 뜻이다.
④ O. '잇달-'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으면 'ㄹ'이 탈락하여 '잇단'이 된다. 따라서 '잇딴'은 '잇단'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②는 높임 표현에 '시'가 들어간다는 점만 보고 '주십시요'라고 쓰기 쉽다. 그러나 종결 표현은 '-십시오'이므로 '주십시오'가 맞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받침 유무는 '이에요/예요'로, 뜻의 차이는 '반드시/반듯이'로 판단한다. 높임 명령·요청의 끝맺음은 '-십시오'인지 확인하고, 활용형은 기본형 '잇달다'에서 어미가 붙을 때의 형태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받침 있으면 '이에요', 요청은 '십시오', 꼭은 '반드시', 연달아는 '잇단'이다.

NoteBase

문 13. 밑줄 친 한자의 독음이 다른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復活 — 復命
② 樂園 — 樂勝
③ 降等 — 下降
④ 率先 — 引率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같은 한자라도 단어에 따라 독음이 달라지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자음은 원칙적으로 일정하지만, 일부 한자는 단어 안에서 관용적으로 다른 독음으로 읽힌다. '復'은 '復活'에서는 부활로 읽지만 '復命'에서는 복명으로 읽는다. 반면 '樂', '降', '率'은 이 문항의 두 단어에서 각각 낙, 강, 솔로 같은 독음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復活'은 부활, '復命'은 복명으로 읽는다. 밑줄 친 '復'의 독음이 부/복으로 다르다.
② X: '樂園'은 낙원, '樂勝'은 낙승으로 읽는다. 틀린 판단은 '독음이 다르다'는 것이다. 올바르게는 두 단어의 '樂'은 모두 낙으로 읽는다.
③ X: '降等'은 강등, '下降'은 하강으로 읽는다. 틀린 판단은 '독음이 다르다'는 것이다. 올바르게는 두 단어의 '降'은 모두 강으로 읽는다.
④ X: '率先'은 솔선, '引率'은 인솔로 읽는다. 틀린 판단은 '독음이 다르다'는 것이다. 올바르게는 두 단어의 '率'은 모두 솔로 읽는다.

오답 포인트

②의 '樂'은 즐길 락으로 떠올리기 쉽지만, '낙원·낙승'에서는 낙으로 읽는다. ④도 '인솔'의 어순 때문에 '率'의 독음이 달라 보일 수 있으나 '솔선·인솔' 모두 솔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한자를 따로 읽지 않고, 밑줄 친 한자가 들어간 완성된 단어를 소리 내어 읽은 뒤 두 독음을 직접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부활은 부, 복명은 복: '復'은 단어에 따라 부/복으로 갈린다.

NoteBase

문 14. 문장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대화명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않는 사람은 관리자가 카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②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마음속으로라도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

③ 월드컵에서 보여 준 에너지를 바탕으로 국민 대통합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④ 행복의 조건으로서 물질적 기반 이외에 자질의 연마, 인격, 원만한 인간관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장 성분을 병렬로 연결할 때 서술어·시제·표현 단위가 자연스럽게 호응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문장 성분의 호응은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병렬로 연결한 말들의 문법적·의미적 짝이 맞는 관계이다. 병렬 성분은 같은 기준과 형식으로 나열하고, 시간 표현은 문맥의 시제와 맞춘다.

선지별 해설

① O. '관리자가'가 주어이고 '카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가 그에 호응하는 서술어이다. '대화명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용 제한의 대상이므로 문장 성분의 관계가 자연스럽다.

② X.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과거의 상황인데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현재 관형사형으로 되어 있어 시제가 어색하다. 틀린 표현은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며, 올바르게는 '박수를 보낸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라고 쓴다.

③ X. '국민 대통합'과 '국가 경쟁력'에 '제고하다'를 함께 걸 수 없다. 틀린 표현은 '국민 대통합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이며, 올바르게는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쓴다.

④ X. '자질의 연마, 인격, 원만한 인간관계'는 병렬 성분의 표현 단위가 고르지 않다. 틀린 표현은 '자질의 연마, 인격, 원만한 인간관계'이며, 올바르게는 '자질의 연마, 인격의 도야,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처럼 같은 구조로 맞춰 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제고'가 '국가 경쟁력'에는 어울린다는 점 때문에 함께 묶인 '국민 대통합'에도 쓸 수 있다고 보기 쉽다. ④는 나열된 말이 모두 행복과 관련되어 보여도, 병렬 성분의 표현 형식이 통일되지 않은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결된 명사마다 같은 서술어를 붙여 본다. 어느 한 성분에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으면 서술어를 나누어 쓰고, 나열한 말은 명사·명사구·동작 명사구 가운데 같은 단위로 맞춘다. 시간 부사절이 있으면 관형사형의 시제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병렬은 같은 꼴, 서술어는 모든 성분에 맞는 꼴이다.

NoteBase

문 15. 사동 표현이 없는 것은?

① 목동이 양들에게 풀부터 뜯겼다.

② 아이들은 종이비행기만 하늘로 날렸다.

③ 태희는 반지마저 유진에게 보여 주었다.

④ 소영의 양손에 무거운 보따리가 들려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사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표현이고, 피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의 행위를 당하거나 그 결과 상태에 놓이는 표현이다.

핵심 개념

사동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게 한다'의 관계가 드러나는 표현이다. 피동은 '무엇이 누구에게 어떻게 되다'의 관계가 드러나는 표현이다. '-기-', '-리-'처럼 같은 형태의 접사가 문맥에 따라 사동 또는 피동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누가 행동을 시키는지를 살핀다.

선지별 해설

① X: '목동이 양들에게 풀부터 뜯겼다'는 목동이 양들로 하여금 풀을 뜯게 한 뜻이다. '뜯겼다'가 양들에게 행동을 하게 한 사동 표현이다. 틀린 판단은 '사동 표현이 없다'이며, 올바르게는 '사동 표현이 있다'이다.

② X: '아이들은 종이비행기만 하늘로 날렸다'에서 '날렸다'는 종이비행기가 날게 한 뜻이다. '날다'에 대응하는 사동 표현이므로 사동 표현이 있다. 틀린 판단은 '사동 표현이 없다'이며, 올바르게는 '사동 표현이 있다'이다.

③ X: '태희는 반지마저 유진에게 보여 주었다'는 유진이 반지를 보게 한 뜻이다. '보여 주었다'에 상대방에게 보게 하는 사동의 뜻이 나타난다. 틀린 판단은 '사동 표현이 없다'이며, 올바르게는 '사동 표현이 있다'이다.

④ O: '보따리가 소영의 양손에 들려 있다'의 '들려 있다'는 보따리가 들어 올려진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보따리가 누군가에게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당한 결과 상태이므로 피동 표현이며, 사동 표현이 없다.

오답 포인트

④의 '들려 있다'에 사동 접사처럼 보이는 '-리-'가 있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보따리가 다른 대상에게 행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손에 들린 상태이므로 피동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어만 보지 않고 문장의 관계를 확인한다.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행동을 하게 하면 사동이고, 주어가 행동을 당하거나 그 결과 상태를 나타내면 피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시키면 사동, 당하거나 된 상태이면 피동이다. '보따리가 들려 있다'는 보따리의 상태이므로 피동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군산이 일본으로 쌀을 이출하는 전형적인 식민 도시였다면, 금강과 만경강 하구 사이에서 군산을 에워싸고 있는 옥구는 그 쌀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식민 농촌이었다. 1903년 미야자키 농장을 시작으로 1910년 강점 이전에 이미 10개의 일본인 농장이 세워졌으며, 1930년 무렵에는 15~16개로 늘어났다. 1908년 한국인 지주들도 조선 최초의 수리조합인 옥구서부수리조합을 세우긴 했지만 일본인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1930년 무렵 일본인은 전라북도 경지의 대략 1/4을 차지하였으며, 평야 지역인 옥구는 절반 이상이 일본인 땅이었다. 쌀을 군산으로 보내기 편한 철도 부근의 지역에서는 일본인 지주의 비중이 더 높았을 것이다. '이리부터 군산에 이르는 철도 연선의 만경강 쪽 평야는 90%가 일본인이 경영한다.'는 말이 허풍만은 아닐 거다. 일본인이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조선인은 '산비탈 흙구덩이'에 몰려 사는 처지라는 푸념 또한 과언이 아닐 거다.

① 인과적 연결을 통해 대상을 논증하고 있다.

② 반어적 수사를 동원하여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③ 풍자와 해학을 동원하여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다.

④ 구체적인 사실과 정보를 중심으로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글은 옥구 지역의 일본인 농장 수와 토지 점유 비율, 철도 주변의 경영 실태 등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여 일제의 토지 점유 상황을 설명한다.

핵심 개념

인과적 연결은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이어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반어적 수사는 겉말과 속뜻을 반대로 하여 비판하는 표현 방식이다. 풍자와 해학은 웃음이나 비꼼을 통해 대상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구체적 사실과 정보 중심의 설명은 연도, 수치, 사례 등을 제시하여 대상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일본인 농장 수의 증가와 토지 점유 실태를 제시할 뿐, 한 현상의 원인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증하지는 않는다. 틀린 표현은 '인과적 연결을 통해'이며, 올바르게는 '구체적 사실과 정보를 제시하여' 대상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② X: 독자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는 반어적 질문이나, 겉뜻과 속뜻을 반대로 하는 표현이 없다. 틀린 표현은 '반어적 수사를 동원하여'이며, 올바르게는 역사적 사실과 수치를 들어 일본인의 토지 점유를 비판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X: 웃음이나 비꼼을 일으키는 풍자·해학의 표현이 없다. 틀린 표현은 '풍자와 해학을 동원하여'이며, 올바르게는 연도·농장 수·토지 비율 등의 정보를 통해 실태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④ O: 1903년, 1910년, 1930년 등의 연도와 농장 수, 전라북도 경지 면적의 약 1/4, 평야의 90% 등 구체적 사실과 정보를 근거로 옥구의 일본인 토지 점유 실태를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글의 마지막에 일본인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조선인이 척박한 땅에 밀려났다는 비판적 관점이 드러난다. 그러나 비판적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어·풍자·해학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이 글의 중심 전개 방식은 수치와 사례를 통한 설명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글에 연도, 수치, 비율, 사례가 차례로 제시되면 먼저 사실과 정보에 의한 설명인지 판단한다. 질문 형식이나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실제로 있는지를 따로 확인하여 반어·풍자·인과 논증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연도·수치·사례 제시 = 구체적 사실과 정보를 통한 설명이다.

NoteBase

문 17.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나)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근대적 연애에서 자기 의사를 중시하는 대등한 개인의 만남과 둘 사이에 타오르는 감정의 비중이 부각된다. 특히 상대방의 모습이 불러일으키는 열정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전통 사회의 남녀 관계에서 가족 사이의 약속, 상대방에 대한 의존 가능성, 서로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비교 같은 외적 기준이 중시되었던 것과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 옳다, 그렇다. 나는 영채를 구원할 의무가 있다. 영채는 나의 은사의 따님이요, 또 은사가 내 아내로 허락하였던 여자라. 설혹 운수가 기박하여 일시 더러운 곳에 몸이 빠졌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건져 낼 책임이 있다. 내가 먼저 그를 찾아다니지 못한 것이 도리어 한이 되고 죄송하거늘, 이제 그가 나를 찾아왔으니 어찌 모르는 체하고 있으리요. 나는 그를 구원하리라. 구원하여서 사랑하리라. 처음에 생각하던 대로, 만일 될 수만 있으면 나의 아내를 삼으리라. 설혹 그가 기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양반의 집 혈속이요, 또 어려서 가정의 교훈을 많이 받았으니 반드시 여자의 아름다운 점을 구비하였으리라. 또 만일 기생이라 하면 인정과 세상도 많이 알았을지요, 시와 노래도 잘할지니, 글로 일생을 보내려는 나에게는 가장 적합하다 하고 형식은 가만히 눈을 떴다. 멍하니 모기장을 바라보고 모기장 밖에서 앵앵하는 모기의 소리를 듣다가 다시 눈을 감으며 싱긋 혼자 웃었다. 아까 영채의 태도는 과연 아름다웠다. 눈썹을 짓고, 향수 내 나는 것이 좀 불쾌하기는 하였으나 그 살빛과 눈찌와 앉은 태도가 참 아름다웠다. 더구나 그 이야기할 때에 하얀 이빨이 반작반작하는 것과 탄식할 때에 잠깐 몸을 틀며 보일 듯 말 듯 양미간을 찌그리는 것이 못 견디리만큼 어여뻤다. 아까 형식은 너무 감격하여 미처 영채의 얼굴과 태도를 자세히 비평할 여유가 없었거니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영채의 일언일동과 옷고름 맨 모양까지도 어여뻐 보인다. 형식은 눈을 감고 한번 더 영채의 모양을 그리면서 싱긋 웃었다. 도리어 저 김장로의 딸 선형이도 그 얌전한 태도에 이르러서는 영채에게 및지 못한다 하였다. 선형의 얼굴과 태도도 얌전치 아니함이 아니지마는 영채에 비기면 변화가 적고 생기가 적다 하였다.

— 이광수, 「무정」 —

① 영채가 형식에게 원하는 것이 형식의 보호라면, 이를 근대적 사랑이라 보기 어렵다.

② 은사가 아내로 허락하였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보면 형식의 영채에 대한 감정은 근대적 사랑이라 보기 어렵다.

③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시와 노래에 능한 영채의 장점을 호평하는 형식의 생각은 열정과 연결시킬 수 있다.

④ 영채의 외모와 행동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장면에서 영채에 대한 형식의 열정을 찾을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근대적 연애의 핵심인 개인의 자유로운 만남과 상대의 모습에서 비롯되는 열정을, 전통 사회의 가문·보호·처지 같은 외적 기준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근대적 연애는 개인의 의사에 따른 만남에서 상대의 모습이 불러일으키는 열정과 감정이 중심이 되는 사랑이다. 반대로 전통적 혼인관은 가문 사이의 약속, 상대에 대한 의존, 서로의 처지·조건 비교 같은 외적 기준을 중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영채가 형식에게 바라는 것이 보호라면, 두 사람의 대등하고 자발적인 감정보다 의존 관계가 중심이 된다. 이는 (가)에서 전통 사회적 관계의 기준으로 든 '상대방에 대한 의존 가능성'에 가깝다.

② O. 형식은 영채를 생각하며 먼저 은사가 자신의 아내로 허락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이는 개인의 감정보다 은사와의 관계 및 허락이라는 외적 기준을 앞세운 것이므로 근대적 사랑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③ X. 틀린 표현은 '열정과 연결시킬 수 있다'이다. 형식이 영채의 시와 노래 실력을 높이 평가한 까닭은 '글로 일생을 보내려는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자신의 처지와 생활 조건에 맞추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의 모습에 이끌린 열정이 아니라 상대의 조건을 비교한 것이므로, 열정과 연결하기 어렵다.

④ O. 형식은 영채의 살빛·눈짓·앉은 태도와 말할 때의 표정 등을 떠올리며 싱긋 웃는다. 상대의 외모와 행동이 형식의 감정을 움직인 모습이므로, (가)가 말한 상대의 모습이 불러일으키는 열정을 찾을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영채의 재능을 칭찬한다는 점 때문에 호감이나 열정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형식은 그 재능을 자신의 글쓰기 생활에 '적합한' 조건으로 평가한다. 상대를 향한 감정의 고조와 상대의 조건을 따지는 판단은 구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말과 생각에서 가문·허락·보호·처지·유용성·조건 비교가 앞서면 전통적 관계 기준으로,
외모·태도·개성에 이끌려 감정이 고조되면 근대적 연애의 열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근대적 연애는 '상대에게 끌리는 감정', 전통적 혼인관은 '관계와 조건의 계산'이 중심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산화탄소와 온실효과가 처음부터 자연에 해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온실효과는 지구의 환경을 생태계에 적합하도록 해 주었다. 만약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 표면에서 복사된 열이 모두 외계로 방출되어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평균 3, 4도 정도 낮아져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나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50 ~ 200년이나 체류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다. 이산화탄소 외에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는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수증기 등이 있다. 프레온은 전자 제품을 생산할 때 세척제 혹은 냉장고의 냉매로 쓰인다. 아산화질소와 메탄은 공장과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생긴다. 수증기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양은 자연 생태계가 조절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①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등의 기체는 지구 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② 자연적인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 표면에서 복사된 열이 모두 외계로 방출된다.
③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서 지구 온난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④ 수증기도 이산화탄소처럼 온실효과를 나타내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자연적인 온실효과의 역할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과다해졌을 때의 문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연적인 온실효과는 지표가 복사한 열의 일부가 대기에 머물러 지구를 생태계에 알맞은 온도로 유지하게 하는 현상이다. 문제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이산화탄소가 지나치게 많아져 온실효과가 과도해지는 데 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체류 기간이 길어 효과가 크며, 수증기는 온실효과를 일으키지만 그 양이 자연 생태계에서 조절되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문은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가 틀린 표현이다. 본문은 프레온·아산화질소·메탄도 이산화탄소 외에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라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이 기체들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② X. '자연적인 온실효과 때문에'와 '모두'가 틀린 표현이다. 본문은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표에서 복사된 열이 모두 외계로 방출된다고 한다. 올바르게는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있어 열의 일부가 대기에 머문다.
③ X. '지구 온난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가 틀린 표현이다.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 체류 기간이 50~200년으로 길어서 온실효과가 크다고 한다. 올바르게는 체류 기간이 길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커진다.
④ O. 수증기도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본문은 그 양이 자연 생태계에서 조절되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처럼 큰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는 작다는 진술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①의 '영향이 없다', ②의 '모두', ③의 '방지에 도움'처럼 지문의 내용을 정반대로 바꾸는 단정 표현이 함정이다. 자연적 온실효과 자체는 필요한 현상이고, 온실가스의 과도한 증가가 문제라는 구별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온실효과 관련 지문에서는 자연적 온실효과의 존재 여부와 온실가스의 과다 증가를 먼저 나누어 본다. 이어서 각 기체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지, 대기 체류 기간과 자연 조절 여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자연 온실효과는 생태계에 필요하고, 이산화탄소의 과다·장기 체류는 온난화 문제이며, 수증기는 자연적으로 조절된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것은 산람(山嵐)이라
천암만학(千巖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셩 들멍셩 이래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내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廣野)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옅으락 짙으락
사양(斜陽)과 섞어지어 세우(細雨)조차 뿌리는가.

… (중략) …

초목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매몰커늘
조물(造物)이 헌사하여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의 벌렸구나.
건곤(乾坤)도 가암열사※ 간 데마다 경이로다.

- 송순, 「면앙정가」 -

※ 가암열사: 풍성하다는 뜻.

①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셔라.

② 이 술 가져다가 사해(四海)에 고루 나누어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다 취(醉)케 만든 후에 그제야 고쳐 만나 또 한 잔 하잤고야.

③ 모첨(茅簷)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눌 위하여 밝혔는고.

④ 종조추창(終朝惆悵)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없어 들리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누리는 화자의 흥겨운 정서와 가장 유사한 시적 정서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연 친화적 풍류는 산수·송죽·바람·달 등의 자연물을 벗 삼아 유유자적하는 정서이다. 사회를 향한 나눔, 밤의 고독, 가을 들판의 쓸쓸함은 자연 속 풍류와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수간모옥'을 '벽계수'와 '송죽' 사이에 두고 '풍월주인'이 되겠다는 내용이다. 자연 속에 머물며 풍류를 누리려는 정서가 제시문 화자의 흥취와 가장 가깝다.
② X. '사해에 고루 나누어 억만창생을 다 취하게' 한다는 내용은 많은 사람과 술을 나누려는 포부와 애민의 정서가 중심이다. 틀린 표현은 자연 속 풍류와 유사하다고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사회 전체를 향한 나눔의 정서이다.
③ X. 밤중에 돌아와 '반벽청등'의 불빛을 마주하는 모습은 밤의 적막과 고독한 정조를 드러낸다. 틀린 표현은 흥겨운 자연 풍류와 유사하다고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외롭고 쓸쓸한 정서이다.
④ X. '종조추창'과 '농가도 흥 없어'는 가을 들판을 보며 느끼는 시름과 적막을 나타낸다. 틀린 표현은 풍류를 즐기는 정서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추수 뒤 농촌의 쓸쓸함을 관조하는 정서이다.

오답 포인트

②에도 술, ③·④에도 자연 배경이 나타나지만, 정서의 중심이 다르다. ②는 나눔의 포부, ③은 밤의 고독, ④는 '흥 없어'로 드러나는 쓸쓸함이므로 제시문의 흥겨운 산수 풍류와 거리가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연물의 나열만으로 정서를 판단하지 않는다. 화자가 자연을 벗 삼아 즐기는지, 타인을 걱정하는지, 외로워하는지, 쓸쓸해하는지를 서술어와 정서어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풍월주인·송죽·벽계수'는 자연 속 풍류, '흥 없어·추창'은 쓸쓸한 정서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트 중에서도 엔진과 선실을 갖추지 않은 1~2인용 딩기(dinghy)는 단연 요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딩기는 엔진이 없기에 오로지 바람에 의지해 나아가는 요트다. 그러므로 배 다루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바람과 조화를 이루고 그 바람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배는 바람을 받고 앞으로 전진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요트는 맞바람이 불어도 거뜬히 전진할 수 있다. 도대체 요트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해답은 삼각형 모양의 지브세일(jib sail)에 숨어 있다. 바람에 평행하게 맞춘 돛이 수직 방향으로 부풀어 오르면 앞뒤로 공기의 압력이 달라진다.
요트의 추진력은 돛이 바람을 받을 때 생기는 풍압과 양력에 의하여 생긴다. 따라서 요트의 추진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압이 추진력의 주(主)가 되는 풍하범주(風下帆舟)와, 양력이 주(主)가 되는 풍상범주(風上帆舟)를 구분하여야 한다.
요트가 바람을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풍하범주의 경우에는 바람에 의한 압력이 돛을 경계로 하여 풍상 측에서 높고 풍하 측에서 낮게 된다. 따라서 압력이 높은 풍상 측에서 압력이 낮은 풍하 측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 힘을 총합력이라고 한다. 이 총합력의 힘은 평행사변형 법칙에 의하여 요트를 앞으로 추진시키는 전진력과 옆으로 밀리게 하는 횡류력으로 분해될 수 있다. 센터보드나 킬(keel)과 같은 횡류방지장치에 의하여 횡류를 방지하면서 전진력을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요트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풍상범주의 경우는 비행기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하여 비행기가 뜨게 되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요트가 추진하게 된다.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하면 유체의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낮아지고,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아진다. 비행기 날개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돛의 주위에 공기가 흐를 때 돛을 경계로 하여 풍상 측의 공기 속도는 느려지고 풍하 측의 공기 속도는 빨라진다. 그러므로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하여 풍하 측으로 흡인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총합력이 된다. 이 총합력은 풍하범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진력과 횡류력으로 분해된다. 횡류력은 요트를 옆 방향으로 미는 힘으로서 센터보드 등의 횡류방지장치에 의하여 상쇄된다. 따라서 요트는 전진력에 의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① 딩기는 순풍이 불 때는 횡류력으로, 역풍이 불 때는 전진력으로 나아간다.

② 센터보드나 킬로 인해 요트는 옆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③ 풍하범주는 풍압이 추진력의 주(主)가 되며, 풍상범주는 양력이 추진력의 주가 된다.

④ 요트가 바람을 등지고 갈 때는 풍압에 의존하고, 맞바람을 받고 갈 때는 양력에 의존하게 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요트가 순풍을 받을 때의 풍하범주와 맞바람을 받을 때의 풍상범주에서 추진력의 주된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총합력이 어떻게 분해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풍하범주는 바람을 뒤쪽에서 받아 항해하는 경우로, 돛 양쪽의 압력 차이에서 생기는 풍압이 추진력의 주가 된다. 풍상범주는 맞바람을 거슬러 항해하는 경우로, 돛 양쪽 공기 속도 차이에서 생기는 양력이 추진력의 주가 된다. 두 경우 모두 총합력은 전진력과 옆으로 미는 횡류력으로 분해되며, 횡류력은 센터보드나 킬이 상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순풍을 받을 때에는 풍압에 의한 총합력의 전진력 성분을 이용하고, 맞바람을 받을 때에는 양력에 의한 총합력의 전진력 성분을 이용한다. 틀린 표현은 '순풍이 불 때는 횡류력으로, 역풍이 불 때는 전진력으로'이다. 올바르게는 '순풍과 역풍 모두 전진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각 경우에 생기는 횡류력은 센터보드나 킬이 상쇄한다'이다.

② O. 돛에서 생긴 총합력에는 옆 방향의 횡류력이 포함되지만, 센터보드나 킬 같은 횡류방지장치가 이를 상쇄하므로 요트는 옆으로 밀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다.

③ O. 풍하범주는 압력 차이에서 생기는 풍압이 추진력의 주가 되고, 풍상범주는 공기 속도 차이와 압력 차이에서 생기는 양력이 추진력의 주가 된다.

④ O. 바람을 등지고 가는 풍하범주에서는 풍압이, 맞바람을 받고 가는 풍상범주에서는 양력이 각각 추진력의 주된 원인이 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순풍·맞바람의 항해 원리와 전진력·횡류력의 방향을 뒤섞은 선지이다. 풍압과 양력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추진 원리이고, 전진력과 횡류력은 그 총합력을 나눈 방향 성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바람이 뒤에서 오면 풍하범주·풍압, 앞에서 오면 풍상범주·양력으로 구분한다. 이어서 어느 경우든 총합력은 전진력과 횡류력으로 나뉘고, 실제 전진에는 전진력 성분이 쓰이며 횡류력은 킬이나 센터보드가 막는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순풍은 풍압, 맞바람은 양력, 옆밀림은 킬·센터보드가 상쇄한다.

NoteBase